

韓日 大學教育 革新의 探索

李 榮 德

(서울大 教育學科)

I. 序

韓國大學教育協議會 主催로 1985년 6월 20일과 21일 兩日間に 걸쳐서 大學教育 發展을 위한 韓·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명의 기조강연자, 8명의 주제발표자, 8명의 토론자, 3명의 사회자, 30여 명의 참석자와 주관자들을 합해서 50여 명의 선별된 전문가들이 만나서 韓·日 두 나라의 大學教育의 現況과 문제와 發展努力들에 관해서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았다. 韓國과 日本은 가까우면서도 멀고 멀면서도 가깝다고 하지만, 두 나라 전문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고 보니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共通點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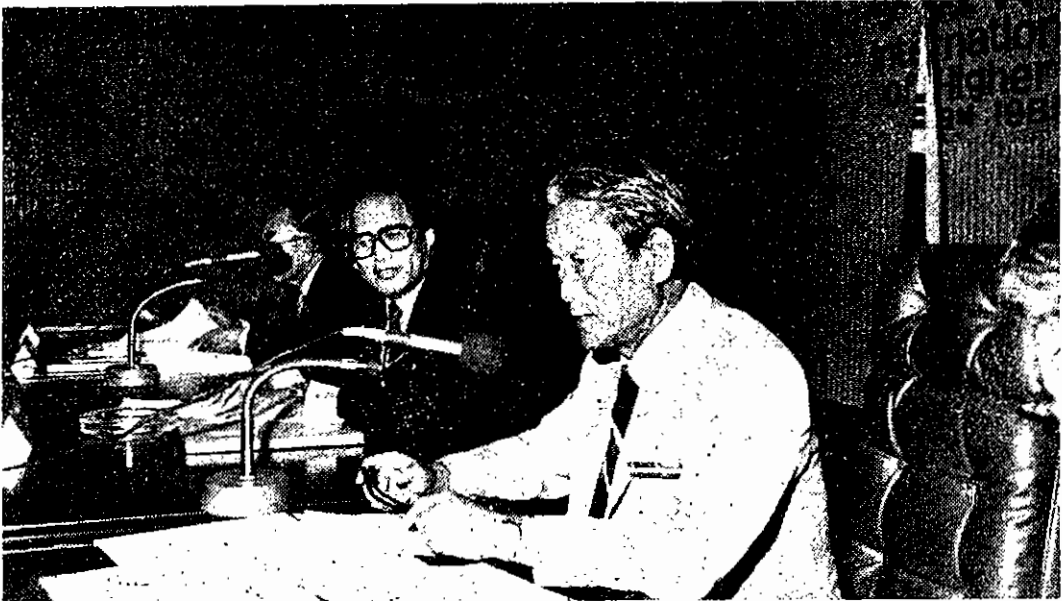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副會長 金明會 박사는 그의 開會辭에서 오늘의 大學들은 未曾有的 葛藤과 挑戰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세미나야말로 未來社會의 要求를 충족시키기에 합당한 새로운 大學像을 그려 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고 했다. 大學教育改革論, 韓·日 大學教育의 相互診斷, 大學間協力, 放送教育 등의 畛域을 넘어서는 네 개의 領域에 걸친 山積한 문제들을 내어 놓고 단 이틀 동안에 이야기를 해본다는 일 자체가 過慾이었다. 개최사에서의 金

박사의 희망을 다 채워 주지는 못했지만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러한 모임을 꾸준히 거듭하노라면 분명히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한 세미나였다.

II. 基調講演

韓國의 정범모 교수와 日本의 아마기 이사오(天城 勳) 선생의 기조강연으로 세미나의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岐路에 선 高等教育”이라는 演題로 행한 基調講演에서 정교수는 오늘의 韓國 大學들이 경험하고 있는 大學의 規模, 構造, 役割, 機能, 教育內容, 方法 등에 걸친 變革의 性格을 究明하고 그 속에 복잡하게 뿌리박은 문제 요인들을 分析하고 未來의 大學을 살릴 수 있는 選擇과 決定의 문제를 토론했다. 高度로 選擇된 少數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격리되어 眞理探究에만 專念하는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命題로 시작된 講演에서 정교수는 1955년에 大學 適齡人口의 5%에 불과했던 大學生數가 30년 사이에 34%로 늘어난 경이적 학생증가 앞에서 大學은 體質改善이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고 했다. 眞理探究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生業을 준비하고 社會의 地位를 획득하는 것을 중요한 동기로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多數를 차지하게 되었으



▲ 오늘의 대학은 매우 중대한 政策的 選擇과 決定을 내려야 할 岐路에 서 있다.(基調講演)

며, 이에 밀려 대학은學位生産工場化되어 가고 대학의 質은 마치 덩치 큰 유치원생으로 비유되는 상태로 떨어지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未來의 挑戰을 이겨내려면 오늘의 대학은 매우 중대한 政策的 選擇과 決定을 내려야 할 岐路에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선택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平等 對 秀越性의 문제, 둘째 學習의 內的 價値 對 外的 價値, 셋째 多樣性 對 統一性의 문제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림길의 문제들은 對立概念으로 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統合되어야 할 두 개의 相異한 길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研究와 創造的 革新努力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高等教育의 發展과 未來展望”이라는 題下에 아마기 이사오 선생은 第二次 大戦 이후의 日本의 高等教育의 발전을 概觀하고 未來 대학의 發展 方案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戰後 日本의 高等教育은 놀라운 量的 팽창을 거듭하는 가운데 大學과 學問의 地域的 不均衡을 심화시켰으며, 高等教育水準을 低下시켰고, 私學의 財政難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高等教育의 未來를 展望하면서 아마기 선생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必要들의 充足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로 高等教育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地域社會에 대해서 大學은 더 開放되어야 하고 大學間, 地域間 協力の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둘째로 高等教育은 國際化되어야 한다. 高等教育의 國際化야말로 가장 日本다운 일인데 현실은 그것과 逆行하는 폐쇄성에 빠지고 있다. 셋째로 高等教育의 體制化(systematization)가 필요하다. 定規 綜合大學, 短期(初級)大學, 技術(工業)大學, 放送大學, 夜間大學…… 등 이러한 多樣化는 현대 社會의 要求에 응하기 위해 필요하나 그것들을 全體로 묶고 연결시키는 一貫性 있는 高等教育體制 統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각국의 大學은 固有의 特性을 지닌 대학으로 發展해 가야 한다. 500여 개의 大學들이 劃一的인 모습을 지니게 되어 特性에 따른 選擇 대신 名聲에 따른 入試경쟁으로 들끓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이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Ⅲ. 大學教育의 改革(第1主題)

“韓國 高等教育의 學事改革”이라는 題目의 主題發表에서 김관수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高等教育 改革들을 綜合的으로 설명하였다. 高

等教育의 普遍化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大學의 役割과 構造의 變化와 함께 高等教育의 質과 妥當性 提高를 위한 創造的인 對策들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質 管理를 위한 評價 認定體制에 專門化의 필요를 강조했다. 高等教育의 人間化와 人格教育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김교수는 오늘과 내일의 대학은 高度産業社會의 展開에 따라 침투해 오는 諸般社會病理를 극복하고 治療할 責任의 일단을 大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高等教育 受惠者는 支配의 少數 대신 奉仕하는 少數가 되기 위해 共通善을 추구하고, 人間의 尊嚴性에 대한 尊敬과 大衆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精神을 內面化한 人格者를 키울 수 있는 大學教育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박봉목 교수는 量的 成長은 이제 어느 정도 이룩했으니, 이제는 참으로 大學教育의 質을 걱정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교실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느냐보다는 實質的인 배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學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高等教育의 機會擴大에 따른 教育프로그램의 多樣化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大學의 質을 높이기 위해 學問의 프로그램의 秀越性을 견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 主題의 두 번째 발표자 고바야시(小林哲也) 교수는 “日本 高等教育 改革의 문제”라는 題目으로 日本에서의 몇 개의 主要 改革努力에 관해서 소개했다. 1976년에 高等教育研究委員會가 그리고 1979년에 大學認可審議會(University Chartering Council)가 수행한 研究들에서 高等教育機會의 多樣化, 高等教育의 地域間 均衡發展, 教育의 質의 改善 등에 관해서 진의되었는바 그 實現을 위한 施策이 취해지고 있으니 하나의 發展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日本의 高等教育 革新努力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새로운 大學教育構造 創造의 모델로서 스쿠바大學, 3개의 教育大學, 2개의 技術 및 科學大學, 圖書館大學, 放送大學, 國際大學 등의 設立이다. 융통성과 참신성과 實質性이라는 見地에서 이러한 大學들의 設立은 日本 高等教育 發展 努力이 거둔 중요한 成就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취로서 소개할 만한 것은 1980년대에 들

어서면서 모든 私立大學의 經常費 중 30% 가 가까운 國庫補助 增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韓國의 私學育成을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고바야시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최정훈 교수는 高等教育 改革을 위한 노력에서 韓·日 兩國간에는 매우 많은 共通點이 발견되는 바 相互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으며 緊密한 協力を 통해서 힘든 문제들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겠다고 보고 있다. 大學改革에 관한 한 樂觀만은 할 수 없는 것인 바 教育의 세계는 본래 保守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高等教育 改革의 成功을 위해서는 教授들의 態度變化와 改革意志 造成에 힘써야 한다고 최 교수는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도 大學教育 革新努力에서 教授들의 광범한 참여와 실질적인 貢獻의 機會를 열어 준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戰略的 意味를 갖는다.

IV. 韓日 大學教育의 相互診斷(第2 主題)

“韓國인이 보는 日本 高等教育”이라는 題目的 주제발표에서 이돈희 교수는 학생에서의 엘리트주의, 교육내용의 秀越性, 지식교육에서의 人文主義로 특징지어지던 고등교육의 오랜 전통은 고도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동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韓日 兩國간의 比較의 觀點에서 日本 高等教育의 발전과 변천형태를 고찰하고 있다.

第二次 大戰 終結 이후 兩國의 高等教育에 일어난 가장 큰 變化는 아무래도 高等教育 機會의 급속한 擴大이다. 貴族이나 少數 엘리트集團에게만 열려 있던 高等教育의 문이 大衆에게까지 활짝 열리게 되었다. 大學이 엘리트體制에서 大衆教育體制로 移行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機能分化는 불가피한 變化였으며, 質的 水準과 社會的 認定에 있어서의 大學간의 격차를 넓혀 놓았다. 이 교수의 발표 중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高等教育의 大衆화와 質的 低下는 한국에서는 아직 가시지 않은 난폭하고 長期化한 大學內 학생소요의 중요한 原因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日本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高

等教育 改善의 과제로서 大學간의 質과 社會的 認定度의 均衡化, 入試地獄의 解消, 大都市에 집중된 大學人口의 分散, 大衆과 專門人을 위한 人文教育體制의 마련 등을 들고 있다.

이 교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히스 (Joe Hicks) 교수는 또 다른 견해를 펴고 있다. 히스 교수에 의하면 한국과 日本의 大學教育狀況은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大學內 학생소요에 관한 한 두 나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학원내 학생소요는 韓國에서는 아직도 그 熱氣가 매우 높지만 日本의 캠퍼스는 거의 완전한 '고요'의 상태이다. 아직도 매우 少數의 학생들이 1970년대와 맥을 같이하는 過激性을 보이기는 하지만 大衆學生들에 의해 거의 완전히 外面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요 이유로서 히스 교수는 高等教育의 大衆化에 따라서 政治的으로 미숙하고 冷淡·무관심하고 目的의식조차 결여된 學生들이 多數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제 1 주제발표에서의 고바야시 교수의 견해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學生人口의 팽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日本보다 그 도가 더 심한 것인데 아직 학생소요의 熱氣는 높아져 가기만 하니 이 어찌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히스 교수는 韓

國 學生들은 아직도 분명한 투쟁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며 매우 愛國心이 강한 것 같다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주장은 高等教育의 大衆化 물결속에서 韓國 學生들도 日本 學生들 같이 호랑이에서 토끼로 변할 날이 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高等教育의 質의 발전을 위해 많은 資源과 努力을 투입함으로써 大學生들이 매우 價値 있는 教育的 經驗들을 풍부히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성년 세대의 反抗의 熱氣를 식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토론을 끝맺으면서 美國人으로서 日本 高等教育 改善을 위해 한마디 하고 있는데, 日本 大學들의 이른바 講座制(Chair System)는 多學問問 協同과 教育프로그램 革新을 저해하는 勢力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大學내의 小王國들을 구축하는 制度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스 교수의 눈에는 日本 高等教育의 國際化는 아직도 口號의 水準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고 있으며, 좀더 代담한 국제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日本人이 본 韓國의 高等教育”이란 題目으로 主題發表를 한 우마고시(馬越 徹) 교수는 직접 한국에 와서 서울 大學校에서 공부도 했고 또 제



▲ 韓日 양국의 大學教育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속해서 韓國의 高等教育에 대해서 研究하는 日本人 專門家로서 韓國 대학의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은 理解를 하고 있다. 第二次 大戰 이후의 高等教育 人口 팽창은 韓日 兩國에서 共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고, 入試地獄으로 표현되는 심한 大入競爭 또한 兩國에 共通된 현상이다. 우마고시 교수에 의하면 入試競爭의 심각성에 있어서 日本의 경우 韓國보다는 덜하다는 것이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日本의 경우 초급대학(전문대학)과 4년제 正規大學으로 구분되는 二重構造가 定着되어 있어서 그것이 自體冷却의 機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로 그는 日本의 高卒者 對 大卒者의 1:1.2라는 매우 적은 賃金격차를 들고 있다. 한국의 1:2.5라는 심한 격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大學進學動機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韓國의 경우 俸給 격차와 함께 學歷에 따르는 社會의 認定度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高學歷에의 指向은 더욱 激化되며 최근에는 '大學院熱'까지 일고 있다고 관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大學院生의 實數는 日本에 비해 많다는 것이다.

韓日 兩國의 國立大學 운영상황을 比較하면서 日本의 경우 總長이 教授會에서 選出되고 學事에 관한 重要 決定權이 教授會에 있음에 반해 韓國의 경우 國立大學의 總·學長이 政府에 의해 任命되고 重要 決定權도 教授會 밖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이성호 교수는 한국 대학의 量的 急成長에 대한 우마고시 교수의 설명을 받아들 이면서 나아가서 pushing force와 pulling force의 개념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다. 1956~1962년 기간 중의 높은 出産率로 나타난 1970년 중반의 高卒者 自然增加와 累積된 再修生數 및 高級人力 需要增大 등이 중요한 pushing force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한국의 大學들의 大規模化 指向을 중요한 pulling force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大規模化 指向은 한편으로는 대학운영 財源의 確保를 위한 필요에서였고, 또 한편으로는 큰 大學에 부여하는 社會的 認定 같은 要因도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都市와 地方間의 均衡의 成長要

求와 學問分野들의 多岐化 등도 pulling force에 加勢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大學의 構造의 多樣化에 대하여 이 교수는 프로그램의 多樣化, 組織 및 運營의 多樣化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大學 自律性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V. 大學間 協力(第3主題)

"한국에서의 大學間 協力"이라는 題目의 主題 發表에서 유인종 교수는 財政的 制約의 克服, 教育프로그램의 豐富化, 기타 當面문제들의 폭 넓은 처리를 위해 大學間 協力は 절실한 필요라고 前提하고 한국에서의 大學間 協力の 形態와 方法과 발전과정을 綜合的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大學間 協力の 시작은 6·25戰爭 기간중에 있었던 戰時聯合大學에서 비롯되었는데 學點 認定, 教授活用, 財政協力에 이르기까지 매우 綜合的이고 적극적인 協力體制가 실현되었었다. 終戰과 함께 각 대학마다 獨自的 發展을 꾀해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大學間 協力の 可能性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延世大, 梨花女大, 西江大간의 大學院 프로그램에서의 協力體制가 구축되어 制限된 범위에서나마 施設의 相互活用과 共同講義를 실시하고 있다. 1976년에는 崇田大, 中央大, 仁荷大간의 學點 交換制가 시작되었고, 1977년에는 共同세미나도 시작되었다. 韓國放送通信大學은 全國에 분포된 大學들의 協力下에 教授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大學間 協力は 國內뿐만 아니라 國外의 大學들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유 교수는 역설하고 있다. 創意的이고 改革指向的인 大學間 協력이 實效를 거두려면 尙存하는 대학의 閉鎖性과 대학간의 過熱競爭, 기타 利害關係의 상충들을 解消하게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신복 교수는 장차 大學間 協力を 增進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까지 지침 내지 전략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大學間 協力は 그것이 아무리 바람직하게 보인다고 해도 각 個體大學의 自發的 努力에서 이루어져야지 外部의 要求나 지시에 의해서는 아니



▲ 창의적이고 개혁지향적인 大學間 協력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학의 폐쇄성, 과열경쟁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제 3 주제)

된다. 둘째로, 효과적인 大學間 協력을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다. 세계로, 大學間 協력은 한두 개 大學들의 個別的 接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규모, 이를테면 地域單位로 이루어지는 편이 낫다. 한 地域내의 여러 대학들은 각각 獨特性을 지님으로써 他大學들과 相互補充의 關係 속에서 일정한 均衡을 잡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文教部는 대학간의 自由로운 協력을 방해하는 諸規定을 완화 내지 폐지함으로써 大學間 協力の 幅과 密度를 높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私立大學과 大學間 協力”이라는 題目으로 主題發表한 시메무라(示李 悅二郎) 교수는 1983년 현재 日本의 大學 재적생의 73%를 수용하는 私立大學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私立大學에 대한 學校法人 認可 및 取消權을 文教部 長官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日本의 私立大學들은 國立大學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自由와 自律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大學마다 그들의 獨特한 특성을 지닌 卒業生을 배출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大衆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高等教育의 質을 제대로 유지하자면 많은 財政投

入이 필요한데 政府補助 없이는 그것이 不可能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미 다른 日本人 발표자가 밝힌 바도 있지만 私學補助金法이 제정되어 현재 경상비의 20~30%는 政府補助로 충당한다는 보고이다. 大學間의 協력을 위해 私立大學聯合會가 조직되어 있어서 이에 참가하는 大學들간의 協力體制를 다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討論에 나선 어윤배 교수는 급격한 社會變動은 教育體制내에 여러 가지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勢力들을 자라게 한다고 견제하고, 우리나라 大學 특히 私立大學에 그 등안 자라난 문제요인들은 列擧하고 있다. 收容能力을 벗어난 學生數, 자격 갖춘 교수 및 행정가의 부족, 教育의 質 低下, 財源의 寡細性 등이 그 代表的인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根源的인 문제는 財政難의 문제이다. 私立大學의 교육운영비의 50% 이내에서 國庫補助할 수 있도록 규정한 日本의 私學育成 및 補助金法이 우리에게 주는 教訓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大學間 協力の 본보기로서 1976년에 시작된 中央大, 仁荷大, 崇田대간의 協力體制의 特性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VI. 現代의 大學敎育과 放送通信敎育 (第4主題)

“現代의 大學과 遠隔敎育”이란 題目下에 김승한 교수는 平生敎育 개념의 일환으로 放送通信敎育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새로운 敎育哲學과 既存 敎育體制의 代案으로서의 平生敎育概念은 1970년대에 全世界의인 관심을 모았다. 學校內敎育, 成人敎育, 各級의 敎育 등을 하나의 平生敎育過程 속에 統合하는 그러한 敎育體制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遠隔敎育은 새로이 정립된 平生敎育體制의 統合的 일부로서 발족되게 되었는데 英國의 Open University 에 이어 한국에서는 1972년에 放送通信大學이 설립되게 되었다. 김 교수는 遠隔敎育機關이 흔히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正規大學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慈善的·補充的 性格의 것으로 여겨지던 過去의 通念을 배격하면서, 오늘의 遠隔敎育은 오히려 在來式 高等教育과는 전혀 다른 接近을 통한 高等教育의 秀越性 추구로 새로운 大學의 model을 제시할 目的으로 설립된 獨特한 高等教育機關이라고 주장한다. 雙教授制, 對面과 遠隔通信을 혼용한 講義方法, 그리고 單位敎育費의 엄청난 절약 등은 이미 遠隔敎育體制 속에 定着된 일로서 그 效能을 證明하고 있다. 韓國放送通信大學은 一般大學의 16분의 1의 單位敎育費로 高等教育機會 擴大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토론에서 홍기형 박사는 김 교수의 遠隔敎育論에 적극 동의하면서 韓國放送通信大學이 앞으로 더욱 發展할 수 있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放送通信大學의 敎育運營의 關鍵인 全國 大學들과의 協調體制 補完을 위한 계속적이고 創造的인 改善 努力이 필요하다. 둘째로 放送通信大學은 敎育資料 및 媒體研究 開發에서 先導의 역할을 할 수 있는 力量을 비추어야 한다. 셋째로 放送通信大學의 發展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敎育費節減에 力點을 두지 말고 質向上을 위한 새로운 投資에 힘을 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日本 高等教育의 革新: 放送大學의 경우”의

제목으로 日本의 아베(阿部美哉)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아베 교수는 일하는 사람들과 주부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大學水準의 敎育을 배울고,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는 大學敎育體制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日本의 放送大學의 특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統合敎育課程의 운영은 그 特性들 중에서도 또 特記할 만하다. 人文大學의 성격을 가진 放送大學은 3개 코스에 6개 전공을 두고 있다. 제1코스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科學”인데 그 “안에 生活과 福祉”, “아동 발달과 敎育”이라는 두 개의 전공이 있다. 제2코스는 “산업 및 사회생활”인데 그 속에 “사회와 경제” “산업과 기술”의 전공이 있다. 제3코스는 “인문과 자연과학”인데 그 속에 “인간문화 연구”와 “자연의 이해”의 전공이 포함되어 있다.

독특한 敎育과정과 함께 多媒體敎授方法 등의 자랑할 만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設立 初期라 계속 연구 발전시킬 課題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敎育工學의 方法을 적용한 敎授個別化의 필요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討論에 나선 박도순 교수는 放送敎育의 發展을 위해서 TV와 라디오 媒體使用에 있어서의 效果 증진에 도움이 될 네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TV와 라디오 媒體使用에 最適한 內容 選定準據의 마련, 둘째 TV를 통한 敎授에 補充的 도움을 줄 수 있는 參考資料의 마련, 셋째 敎授準備를 위한 充分한 시간과 資源의 投入, 넷째 多人數 敎育과 관련된 內容選定을 위한 研究의 필요 등이다.

VII. 結語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대부분의 內容들을 概觀한 셈이다. 세미나 參加記를 적으면서 어떤 형태의 綜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도 지나친 重複을 피하여야 되겠기에 맺는 말 형식으로 筆者 머리 속에 정리된 것 중 중요한 몇 가지만을 열거해 보겠다.

첫째, 韓日 兩國의 高等教育은 바야흐로 大衆敎育의 時代에 접어들었고 高度 技術社會의 要

請과 다양한 個人的 要求에 응할 수 있는 大學 教育의 構造, 內容, 方定에 一大轉換을 가져와야 할 필요에 直面하고 있다. 未來 高等教育의 成敗는 이와 같이 요구된 轉換에서 얼마나 創意性과 專門性과 충분한 資源이 投入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韓日 兩國의 高等教育은 각각의 絶對한 需要에 따라서 教育프로그램을 改善하고 構造革新을 試圖하고 새로운 形態의 大學을 創案하는 등 적어도 지난 四半世紀 동안에 많은 變化를 경험했다. 이와 같은 改革努力에서 兩國間에는 중요한 差異도 있지만 많은 領域에서 共通點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兩國의 協同的 努力을 통해 效能 높은 새 高等教育像을 創出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 주는 것이다.

셋째, 韓日 兩國의 大學들은 아직도 學問의 秀越性의 堅持를 대학의 중요한 目標로 삼고 있는 바, 이 秀越性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大衆의 다양한 需要에 응할 수 있는 高等教育體制의 構築이 兩國의 共通的인 改革目標이 되는 것 같다.

네째, 兩國의 高等教育은 계속적인 改善과 革新으로만 對應할 수 있는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 계속적인 改革과 革新에는 많은 財政投入이 必須的인 것이 되는데 財政難은 어디에서나 소리 높여 외쳐지는 문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財政壓迫은 私立大學의 경우 더 심하며, 특히 한국의 私立大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日本의 私學育成 및 補助金法은 매우 適切한 制度的 마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계속적인 革新課業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자면 大學운영의 自律性이 絶對히 요구된다. 大學 自律化의 열쇠는 敎授陣이 대학의 主人 노릇을 자유롭게 그리고 能力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知性的인 專門集團일수록 自發的인 일에 있어서 最高度의 能力을 發揮하지, 조금이라도 外的 조종이나 지시를 느낄 때에는 그의 創造의 能力은 激減됨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放送通信大學으로 대표되는 遠隔教育은 분명히 오늘의 大學教育에 새로운 代案的 可

能性을 보여 주고 있다. 制度나 規程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研究 實驗되어 名實相符한 高等教育의 새 모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育成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大學의 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多樣化, 學問의 秀越性 追究, 教育工學의 方法의 活用 등이 모두 絶對히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이 言及되고 主張되고 再強調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人類文化의 道德的·精神의 타락을 匡正할 수 있는 道德的으로 成熟한 大人을 教育해 낼 大學의 責任과 課題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만이 言及했을 따름이다. 이번 세미나 같은 水準 높은 모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여덟째, 大學內 학생소요의 문제는 좀더 많은 討論이 있었으면 했다. 3~4명의 발표자 혹은 토론자가 이 문제에 言及했다. 日本에서 온 사람들은 大學이 엘리트 집단에서 大衆集團으로 옮겨감으로써 學生 大多數가 平俗해져서 나라의 정치적 이슈나 심지어는 大學生으로서의 目的의식도 희박한 토끼集團으로 전락함으로써 캠퍼스는 조용해진다는 論理를 폈다. 한편 한국측의 발표자 중에는 大學이 量的 팽창에 밀려 質이 低下되고 學生들에게 좋은 教育을 베풀 수 없게 되는 데에 학생소요의 원인이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느 편에서든 많은 資源과 創意的 努力의 投入으로 大學의 質이 上昇되어 學生들의 관심과 능력에 挑戰하는 教育經驗들을 풍부히 할 수 있게 된다면 學生들이 호랑이에서 토끼로 전락함이 없이도 그들의 能力과 情熱과 愛國心을 學究으로 昇華시킬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이들간의 짧은 모임이었지만 많은 문제들과 씨름했고 많은 革新 아이디어도 개진된 셈이다. 이런 모임이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추진됨으로써 앞으로 韓日 兩國에게는 물론 世界 高等教育 革新을 主導할 수 있는 힘도 創出될 수 있다고 믿는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임으로 모임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란다. *